

2021년 2월 26일

가족 여러분께,

여러분과 가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중요한 뉴스를 전하고자 합니다.

3년간 교육청을 이끈 후 3월에 교육감에서 물러나려 합니다.

교육청 가족을 떠나며 복잡한 마음입니다. 제 커리어에서 여러분에게 봉사하고 학교와 시스템이 잠재력을 달성하도록 돕는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백만명의 학생들의 힘과 회복력에 놀랐습니다. 제가 전혀 없는 위기를 버틸 수 있게 한 힘이며 이 자리를 떠나면서도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과 학교 커뮤니티에 보여준 헌신과 지원도 놀랍습니다.

제 커리어에서 저를 이끈 비전은 공교육이 아이들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균형장치라는 것입니다. 공교육은 커뮤니티를 고정시킵니다. 공교육은 가난하거나 임시 거주지에 살거나 제 경우처럼 공립 학교 시스템에 들어갈 때 영어를 못하는 아이도 자신의 꿈을 개발하고 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교육은 우리 민주주의의 최고의 이상을 표현합니다. 보로 전역의 학교에서 실현되는 것을 반복해서 보면서 뉴욕시에서 보낸 시간은 이런 신념을 강화하였습니다.

함께 증거를 보았습니다. 12학년 학생들은 졸업률 기록을 반복해서 깼고 대학 입학률은 올라가고 중퇴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 십 년간 쌓여온 뉴욕시와 미국의 인종차별의 결과인 구조와 정책을 허무는데 진정한 진척을 이루었습니다. 분리를 원상태로 돌리고 “평등”을 소수만 이해하는 개념에서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학교는 입학에 대해 아이들을 선별하지 않고 교육청 리소스를 사용하여 저소득 학생이나 영어학습학생에게 공간을 만든 모든 학군은 이런 미션을 실현했습니다.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주목해 모든 아이가 교실과 학교 커뮤니티에서 환영 받고 편안하고 안전한 기분이 들도록 하는 것이 우선 목표가 되었으며 특히 예상치 못한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COVID-19 팬데믹이 시작될 때 우리는 학생, 교직원, 가족, 커뮤니티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최대 학교 시스템을 전환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인기있는 것 보다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선시 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운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학생에게 높은 기대치를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헌신적인 교직원은 다음 교육감으로부터 연속성과 용기 있는 리더십을 기대할 자격이 있습니다. 학교의 실제 현실을 알고 모든 아이들이 9월에 학교 건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번 학년도를 제대로 끝낼 수 있는 재능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리더 중 한사람이 다음 교육감의 특권과 책임을 맡게 되었음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Meisha Porter 씨입니다.

Meisha 는 뉴욕시 공립 학교에서 20 년 재직한 베테랑으로 현재 브롱스 이그제큐티브 수퍼인텐던트입니다. 이 역할에서 보로 전체에서 361 개 학교 235,000 명의 학생이 소속된 7-12 학군 학교를 이끌었습니다. 평생 뉴욕에서 살아온 공립학교 출신이며 Bronx School for Law, Government, and Justice 설립을 돕고 교사로 처음 교육청에 들어왔습니다. 이 학교에서 18 년간 재직하여 교장이 되었고 3 년간 브롱스의 Pelham Parkway, Eastchester, Woodlawn 지역이 속한 11 학군 수퍼인텐던트로 일했습니다. 2018 년부터 이그제큐티브 수퍼인텐던트가 되었으며 이 시간 동안 브롱스의 학생들은 학업적 성장을 달성했고 학교들은 개선되었습니다.

Meisha 는 학생과 학교들을 위한 전사입니다. 학교에 재학했고 학교에서 가르쳤고 이끌며 이제 모두를 위한 교육감이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역대 몇몇 교육감은 임명될 때 학교에서 매일 매일 현직으로 학교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Meisha 는 틀을 깨고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이용해 여러분과 아이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곧 Meisha 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며 저는 향후 몇주간 순조로운 인계를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위해 봉사한 것과 함께 만든 진척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저는 다음에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뉴욕시의 정신과 풍부함을 어디에 가든 가져가겠습니다.

교육감으로 재직하는 것은 인생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리처드 A. 카란자
교육감
뉴욕시 교육청